"밀리면 끝장"… 李-朴 검증 전면전

李 "차명 토지·BBK 주식 한주도 없다"

朴 "BBK와 무관하다면 인터뷰 오보냐"

"올 것이 왔다."

한나라당 대선 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양측의 검증 공방이 전면전으로 치달으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 측은 이번 검증 공방에서 밀린다면 경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치권은 이번 검증 공방이 한나라당 경선 국면의 흐름을 좌우할 승부처가 되는 것은 물론 추후 대선 정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이 전 시장은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수천 억대 재산 보유설과 투자운용회사 BBK와의 연루설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 전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랜 기간 대기업 최고경영자로 재직했지만 현재 땅 한 귀퉁이도 남의 이름으로 숨겨 놓은 것이 없다"고 밝힌데 이어 "BBK와 관련,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그동안 당의 화합을 위해 많이 참아왔으나 당내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당이 원칙을 갖고 무차별적인 흑색선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전 시장 캠프도 경선 대세에서 밀리고 있는 박 전 대표 측이 무책임한 폭로전을 펼치고 있다며 적극적인 반격에 나섰다.

특히, 이 전 시장 캠프 일각에서는 박 전 대표와 관련된 의혹 검증에 나서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검증 공방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전 시장 캠프의 좌장인 이재오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명확한 팩트없이'~카더라'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해당행위자"라고 비난하면서 "해당행위자들을 즉각 윤리위에 회부하고 최고의 징계를 내려야 한다"며 당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전 대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박 전 대표 캠프 측은 오히려 더욱 거세게 이 전 시장을 몰아 부쳤다.

유승민 의원은 "금감원이 국회에 제출한 BBK 정관에 이 전 시장이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도록 돼있다는 점과 이 전 시장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BBK를 설립했다고 밝힌 부분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이 전 시장이 정말 BBK와 무관하다면 당시 인터뷰 기사를 쓴 기자들은 모두 오보를 했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이혜훈 의원도 "이 전 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공개 질의된 내용에 대해 하나도 답하지 않고 오직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이 전 시장은 공개적으로 질의된 문제에 대해 명확히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일 이명박 전 시장의 X-파일 문제를 거론한 곽성문 의원은 X-파일은 분명히 존재하며 다만 경선 과열에 대한 당 내외의 우려를 감안, 당분간 대응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예상보다 일찍 검증공방이 가열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번 검증 공방에서 밀린다는 것은 곧 경선 패배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양측의 대결 구도는 극한점으로 달려갈 가능성이 높아 추후 대선 정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이명박 전 서울시장 재산목록

		2007년 6월 현재	2006년 2월	증감분
	항목	재산가액	신고액	
토 지	논현동*	11억5천만원	6억원	5억5천만원
건 물	서초동 영포빌딩 서초동 상가 양재동 영일빌딩 논현동 단독주택	120억원 90억원 68억5천만원 29억원	62억9천만원 46억7천만원 43억원 12억2천만원	57억원 43억3천만원 25억5천만원 16억8천만원
전 세 담보금	가회동 자택 안국포럼	7억원 5천600만원	-	
기 타	예금·승용차 등	6억원	8억원	-2억원
계		약331억원	178억9천만	152억원

※논현동 토지는 부인 김윤옥씨 명의. 작년 12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실제 거래가 없더라도 변동된 공시가격을 신고. 이전에는 실제 거래가 이뤄졌을 경우에만 변동분 신고. 이 전 시장은 지난 2002년 서울시장 취임 이후 부동산거래 실적 없음.

이명박·박근혜 두 후보간의 검증공방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7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인명진 윤리위원장, 박관용 경선관리위원장, 강재섭 대표, 안강민 검증위원장(왼쪽부터)이 긴급회동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정두언·곽성문·최경환 윤리위 회부

한나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명박 전 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의 검증 공방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가운데 당 지도부가 양측의 핵심 의원들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하는 등 강경책을 동원하며 진화에 나섰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박관용 당 경선관리위원장, 안강민 국민검증위원장, 인명진 윤리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긴급 4자 회동을 갖고 이 전 시장의 핵심 측근인 정두언 의원과 박 전 대표 측근 인사인 최경환, 곽성문 의원 등 3명을 당 검증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나경원 대변인 전했다.

이와 관련, 나경원 대변인은 "오늘 검증위에서 3명의 의원을 당장 윤리위에 회부할 가능성이 높다"며 "일단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한 이상 징계수위는 경고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경락잔금대출 전문은행
경락잔액의 100%까지, 간단한 심사로 OK!
법조타운 1층(법원 앞) ☎ 062)233-0717
여수지점 ☎ 061)660-0114
순천지점 ☎ 061)724-3399
2개의 꿈, 우리의 미래
상업저축은행

박영선 "이명박이 김경준 소개해 줘"

"정동영 전 의장 '이명박 X파일' 알지 못한다"

언론인 출신인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7일 "2000년 12월 경제부 기자로서 서울시청 부근 삼성생명 빌딩에 있던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LK-eBank 사무실을 취재했었는데, 그때 이 전시장이 나에게 (BBK 사건의 주역인) 김경준씨를 소개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이 밝히고 "이 전 시장이 당시 김씨를 '하버드 출신의 아비트리지(차익거래) 전문가'라고 소개했으며 당시 김씨의 대표이사 직함이 담긴 명함도 건네받았다"며 "두 사람이 동업자 관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이 전 시장이 당시 김씨와 함께 찍혀있는 뉴스 동영상에 대해 '증거배제' 신청을 했다고 한다"며 "소송에서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증거에 대해 그렇게 하는데, 왜 그 동영상에 대해 신청을 했는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박 의원은 '이 전시장의 X파일에 대해 정 전 의장이 알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내가 (MBC 방송의) LA 특파원을 해 (김경준씨의 누나인) 에리카 김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게 와전된 것 같다"고 부인했다.

박 의원은 "에리카 김과 이 전 시장이 가까운 사이라는 건 LA 교민사회에서는 다 아는 일이며 현지 신문 등을 통해 금방 확인할 수 있다"며 "내 기억으로는 에리카 김이 주최한 출판기념회에 이 전 시장이 참석해 테이프 커팅도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1년 공금 380억 횡령… LA교도소 수감 중

■ 李 전시장 연루설 김경준은 누구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대한 검증과 관련, 또 다시 주목을 끌고 있는 김경준씨는 한국에서 옵셔널벤처스코리아라는 투자회사를 운영하다 2001년 12월 공금 380억원을 빼내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2003년 5월 체포됐다. 현재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연방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김씨를 둘러싼 정치권의 쟁점은 구금 상태에 있는 김씨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과연 어떤 관계였는가에 있다. 김씨가 횡령한 자금의 소유권을 놓고 옵셔널벤처스는 LA소재 연방법원에, 이 전 시장의 형인 이상은씨가 대표로 있는 대부기공은 LA지방법원에 각각 민사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는 등 이들 두 회사가 모두 이 전 시장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 전 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을 그만두고 지난 2000년 e뱅크투자증권을 설립했고, 이후 LA지역 변호사인 에리카 김의 동생인 김경준씨와 'LK e-뱅크'라는 지주 회사를 설립했으며 그 밑에 자회사로 e-뱅크증권, BBK 등을 두고 한동안 동업자로 활동했다는 것이다. 이 지주회사의 이니셜이 이명박-김경주-에리카 김을 땄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이 전 시장은 여러 차례 이를 부인해왔다.

결국, 김씨가 이 전시장과 어떤 관계였는 지는 김씨가 한국으로 송환돼 진실을 털어놓아야 밝혀지겠지만 김씨가 강제송환될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당분간 각종 '설'만 난무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참여정부평가포럼 홈페이지 '기자는 개' UCC… 논란 예상

친노(親盧) 조직인 참여정부평가포럼 홈페이지(www.pgeforum.com)에 언론사 기자들을 '개'와 '고양이'에 비유한 내용의 UCC 만화 동영상이 올라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 동영상은 홈페이지 추천자료 '왈왈왈' 코너의 네티즌 자료실에 '밴댕이'라는 ID의 네티즌이 게시한 것으로 돼있다.

이 동영상은 '죽치고 GO! 땀흘리며 취재하는 기자들을 보고 싶습니다'란 제목의 만화로 개와 고양이를 기자로 등장시켜 기자실에서 판돈을 걸고 화투를 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이들은 화투를 치다 점심시간이 되자 "어이 공무원~ 오늘 밥은 누가 사? 이 국장? 박사장?"이라며 "일식집 밥은 이제 지겹다" "(공무원이) 기삿거리도 좀 만들어오라"고 말하고, 이들이 '죽치고 앉아 쓴' 다음날 신문들은 1면 톱기사와 사진이 모두 똑같은 것으로 돼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방명록 맞춤법 오기 네티즌들 지적 줄이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한글 표기를 놓고 네티즌들이 때 아닌 설전을 벌여 눈길을 끌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부 네티즌이 이 전 시장이 6일 현충원을 방문해 남긴 방명록으로 보이는 글을 네이버, 올블로그 등 인터넷사이트에 올리고 맞춤법이 틀린 부분을 일일이 지적하고 있다는 것.

인터넷 상에 올라온 사진에는 '당신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읍니다. 번영된 조국, 평화통일을 이루는 데 모든 것을 받치겠읍니다. 2007.6.6. 이명박'이라고 친필로 쓴 글이 담겨 있다.

한 네티즌은 이 글을 두고 '습니다'라고 써야 할 것을 '읍니다'라고 쓰고 문맥상 '바치겠습니다'라고 써야 하는데 '받치겠읍니다'라고 맞춤법이 틀렸다고 지적한 뒤 빨간색 펜으로 고친 내용을 다시 게재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5계>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07타경 1416	1	서구 농성동 422-3 3동 10층 1107호 108.67㎡	아파트	100,000,000 100,000,000	2007타경2693[병합]
2007타경 1768	1	북구 문흥동 787-6 101동 1층 106호 96.64㎡	아파트	82,000,000 82,000,000	2007타경3085[중복]
2007타경 3078	1	남구 진월동 508-5 301동 6층 608호 49.95㎡	아파트	48,000,000 48,000,000	임대차있음.
2007타경 4033	1	북구 용봉동 1225-1 4층 403호 59.94㎡	아파트	55,000,000 55,000,000	
2007타경 4521	1	화순군 화순읍 대리 97-3 대광그린아파트 102동 15층 1503호 59.97㎡	아파트	45,000,000 45,000,000	
2007타경 6480	1	서구 쌍촌동 1232-1 101동 3층 306호 84.99㎡	아파트	100,000,000 100,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06타경 2474	1	광산구 산정동 966-12 208㎡ 동소 966-12 1층 115.80㎡ 2층 80.04㎡ 제시외 창고 14.1㎡	대 단독주택	150,339,000 150,339,00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임대차 있음.
2006타경 10086 2006타경 20953 [병합]	1	남구 사동 130-13 138.8㎡ 제시외 창고,변소,세탁실 등 14.5㎡ 동소 130-13 58.74㎡ 부속건물 문간[멸실] 5.61㎡	대 단독주택	67,771,540 67,771,54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2	동소 130-8 175.2㎡ 제시외 주방,창고 등 16.4㎡ 동소 130-8 63.03㎡ 부속건물 문간[멸실] 4.95㎡	대 단독주택	79,134,830 79,134,83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2006타경 10253	1	동구 소태동 676-7 93㎡ 동소 676-7 52.23㎡ 부속건물 광 2.64㎡ 3.96㎡ 제시외 방,거실 등 29.8㎡	대 단독주택	65,469,000 65,469,00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2006타경 28261	2	동구 월남동 279 849㎡ 동소 279 61.48㎡ 제시외 주택,창고 등 218.9㎡	대 단독주택	284,385,300 284,385,300	일괄매각[제시외 건물포함]
2007타경 765	1	광산구 월계동 790-6 260.1㎡ 동소 790-6 1,2,3층 각 152.04㎡ 제시외 출입구 등 53㎡	대 주택,학원	317,079,000 317,079,00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임대차 있음.
2007타경 1331	2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62-17 102㎡ 동소 862-17 52.8㎡ 제시외 다용도실 등 23.2㎡	전 단독주택	22,378,000 22,378,00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2007타경 4859	1	광산구 임곡동 791-7 185㎡ 동소 791-7 80.25㎡ 부속건물 창고 37.26㎡ 계사 7.2㎡ 변소 2.8㎡ 제시외 창고 17.5㎡	대 단독주택	62,458,100 62,458,10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2007타경 6022	1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26-1 221㎡ 동소 26-1 34㎡ 부속건물 창고 12.8㎡ 제시외 창고 13.8㎡	대 단독주택	19,708,780 19,708,78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2007타경 6855	1	담양군 봉산면 제월리 514-1 529㎡ 동소 514-1 84.42㎡ 부속건물 창고 22.80㎡ 제시외 창고 등 58.3㎡	대 단독주택	66,327,920 66,327,92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대지/임야/전답]					
2006타경 669	1	북구 신안동 12-12 353.7㎡	대	399,681,000 399,681,000	임대차있음.
2006타경 8427	2	담양군 남면 구산리 44-4 105㎡	답	2,100,000 2,100,000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2006타경 28261	1	담양군 담양읍 강쟁리 75 652㎡ 동소 76 1646㎡ 동소 111 1319㎡	답 답 전	73,644,000 73,644,0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3	동구 월남동 221-1 2781㎡	답	333,720,000 333,720,000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2007타경 1416	2	북구 일곡동 산185 13388㎡[공유자 박경민의 지분 13388분의 1115.7 전부]	임야	20,082,600 20,082,600	2007타경2693[병합]
2007타경 3047	1	서구 세하동 산50 893㎡	임야	53,580,000 53,580,000	
2007타경 3856	1	곡성군 옥과면 죽림리 115-2 291㎡[공유자 이호의 지분 4분의 3전부]	대	14,183,000 14,183,000	
2007타경 5166	1	화순군 동면 장동리 475-4 635㎡ 동소 475-10 1439㎡ 동소 902-34 72㎡ 화순군 동면 운농리 608-6 1286㎡	전 답 전 전	32,369,500 32,369,5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2007타경 5364	1	장성군 장성읍 부흥리 산53 4504㎡ 동소 산53-2 565㎡ 동소 산53-4 164㎡	임야 임야 임야	16,158,200 16,158,200	일괄매각
	2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61-5 92㎡	답	1,380,000 1,380,000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2007타경 6343	1	광산구 본덕동 776 1379㎡ 동소 777 1021㎡ 동소 787 1983㎡	답 답 답	78,894,000 78,894,0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2	동소 332-1 437㎡	전	43,700,000 43,700,000	
2007타경 7230	1	담양군 무정면 영천리 563 255㎡	대	6,120,000 6,120,000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06타경 8427	1	담양군 남면 구산리 44-1 424㎡ 동소 44-2 50㎡ 동소 59-1 2470㎡ 동소 59-1 73.17㎡ 제시외 창고등 145.2㎡ 동소 56-1 1층 255.36㎡ 2층 143.85㎡ 부속건물 변소 6.48㎡	답 전 대 음식점 음식점,주택	401,247,480 401,247,48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2006타경 15746	1	서구 쌍촌동 606-1 489㎡ 동소 606-1 90.24㎡ 부속건물 변소 1.2㎡ 제시외 사무실,창고 등 93.1㎡	대 사무실,점포	561,006,600 561,006,60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임대차 있음.
2006타경 16763	2	나주시 다시면 청정리 59 51.84㎡ 제시외 정자 8.2㎡	음식점	15,817,320 15,817,320	제시외건물포함
2007타경 3405	1	동구 수기동 5-4 363.6㎡ 동소 5-4 1층 26평9홉 2층 28평8홉 3층 23평3홉 부속건물 사무실 1,2,3층 각 60평4홉 지하실[멸실] 6평8홉	대 사무실	667,059,240 667,059,240	일괄매각
2007타경 6183	1	담양군 담양읍 지침리 134-17 598㎡ 동소 134-17 음식점,사무소 1층 330㎡ 2층 99.34㎡	대 근린생활시설	192,863,340 192,863,340	일괄매각
[기타]					
2005타경 55624	1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88 150㎡ 동소 88 2264㎡ 동소 88-6 711㎡	사무실 공장용지 공장용지	153,575,000 153,575,000	임대차 있음.2006타경48975[중복]2006타경13993[병합]
2006타경 16763	1	나주시 다시면 청정리 62 871㎡[공유자 박득남 지분 1488분의1260 전부.] 동소 62 184㎡ 제시외 창고 등 34.2㎡	전 농업창고	29,153,650 29,153,65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2006타경 25064	1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1437-15 1151㎡ 동소 1437-15 2호 330.0㎡	대 창고	92,538,000 92,538,000	일괄매각
2007타경 1331	1	나주시 안창동 640 1261㎡ 동소 640 1층 442.68㎡ 2층 442.68㎡	잡종지 장례식장	496,661,440 496,661,440	일괄매각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2. 매각기일 : 2007. 6. 25. [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07. 7. 2. [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표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낸 영수증을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에 최선순위의 저당권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응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응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도시계획확인원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전에 집행신청이 취하되거나 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입찰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를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07. 6. 8.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박종희